

의존 명사 ‘것’으로부터 도출된 몇몇 형식에 대한 고찰*

이 은 섭
(울산대학교)

❖ 국문초록

본고는 의존 명사 '것'으로부터 도출된 '거', '게', '걸'의 성격 구명을 위해 작성된 것이다. 최근 이 형식들을 '것'의 이형태로 간주한 논의가 있다. 그러나 이는 교체와 이형태 개념의 전제가 되는 엄밀한 조건들에 대한 고려를 결한 것으로서 재고되어야 한다.

특히 '거'는 기능과 분포의 면에서 '것'과 거의 동일하므로 이형태가 아닌 수의적 변이형이며, 부사격 조사와 통합하는 '걸'은 비록 제약이 강하기는 하나 '거'의 수의적 변이형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격조사구의 일부로서의 '게'나 '걸'은 이미 형태소의 층위를 넘어선 통합 형식이므로 이형태 논의와는 무관하다. 결국 '것'의 이형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제어 : 의존 명사, 교체, 상보적 분포, 이형태, 수의적 변이형

* 본고는 울산대학교 교내 연구비(2013-0011)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1. 서론

본고는 의존 명사 ‘것’에서 도출된 몇몇 형식들의 정체성 구명을 위한 연구이다. 최근에 ‘거’, ‘게’, ‘걸’ 등이 ‘것’의 이형태라고 주장한 진염평(2013) 등의 연구가 이채를 띤다. 그런데 이 견해는 이형태의 개념과 기본적인 성격 등을 고려한다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위 형식들을 ‘것’의 이형태로 확정하는 견해를 재고하고 그 성격을 처음부터 다시 고찰하고자 한다.

‘거’ 등을 ‘것’의 이형태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이 형식들이 이형태 관계에 놓이기 위한 전제 조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영근(2005: 26), 박재연(2010: 140) 등에서는 이형태 관계의 성립 조건으로 음운적 조건과 형태·어휘적 조건의 두 가지만이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해당 형태소 간의 형식적 연관성은 물론이요, 이에 더하여 “의미 기능적 동일성과 상보적 분포” 양상이야말로 이형태 관계 상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조건이 됨을 명확히 한 것이다.(박재연 2010: 140~141) 이를 고려한다면 ‘거’ 등을 ‘것’의 이형태로 간주하는 일련의 논의는 대개 담화의 성격에 따라 변이된 형식들을 오해한 것이 된다. ‘것’과 교체되는 위 형식들이 비록 의미 기능적 동일성을 지니더라도 분포에 있어서 배타적 상보성을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박재연(2010: 150)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상보적 분포는 이형태 관계 수립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인데 그간의 논의는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것’의 이형태를 설정하고자 하는 입장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함과 동시에 관련 형식들의 특성 중 일부를 고찰하고자 한다. 논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2장에서는 ‘것’과 그 관련 형식들의 목록을 확정한다. 그리고 이 형식들의 용법과 분포 양상을 간략하게 제시한 후 해당 형식들의 분포 조건을 정리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한다.

3장에서는 정리된 ‘것’과 그 관련 형식들의 분포 조건을 전제로, 각 형식들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살핀다. 이 작업을 통해 우리는 해당 형식들이 이형태 관계에 놓일 수 있는지를 살피고, 일부 형식들의 개별적 특성 중 주목을 끄는

사항에 대하여서 더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4장은 결론으로서, 전 장들에서 드러나는 내용을 바탕으로 ‘것’과 그 관련 형식들의 성격을 정리하고 남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자료는 국립 국어원 “언어정보나눔터”의 현대 문어 말뭉치 자료와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에 제시된 예문에서 추출한 것을 기본으로 한다.¹⁾ 아울러 필요하다면 선행 연구에서 용례들을 추가로 인용하겠다.

II. ‘것’과 그 관련 형식의 분포 양상

1. ‘것’의 성격과 분포

본 절에서는 ‘것’의 사전 기술과 통합 양상, 아울러 문법화 과정을 거친 ‘-을 것’ 형식의 성격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1.1. ‘것’의 사전적 기술과 통합 양상

‘것’의 분포 양상을 살피기 전에 ‘것’의 전반적 성격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²⁾ 아래는 『표준』에서 여섯 가지로 분류하여 기술한 ‘것’의 용법이다.³⁾

1) 논의의 성격상 상기 기관의 현대 구어 말뭉치 자료를 참조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그러나 이 구어 말뭉치는 일단 그 규모가 문어 말뭉치에 비해 극히 소량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성격상 ‘것’ 관련 도출 용례들의 경우, 문어 말뭉치의 경우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보다 큰 규모인 문어 말뭉치를 이용하였다. “언어정보나눔터”의 웹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s://ithub.korean.go.kr/user/corpus/corpusSearchManager.do;jsessionid=0B5F6FAE157E90C253473D7F6B12E28B>

2) ‘것’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한 논의로는 홍사만(2006)이 있는데 이 논문 126쪽에서도 본고와 마찬가지로 『표준』에 나타난 의미 기술들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참고로 ‘것’이 보이는 대응적 용법은 본고의 성격과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희박하므로 별도로 논의하지 않았다.

3) 논의의 편의상, 본문에서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1998년 간행된 『연세 한국어사전』(이하 『연세』로 지칭한다. 다만 여기서는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 연구원의 누리집의 온라인 서비스를 참조하였다. 웹 주소는 “<https://ilis.yonsei.ac.kr/dic/>”이다.)과 2008년 간행된 『고려대 한국어사전』(이하 『고려대』)의 ‘것’ 기술 내용을 『표준』과 대비하자면 다음과 같다. 『연세』는 의미 기술에 있어서 『표준』의 ‘사물, 일, 현상’

(1) ‘것’의 사전 기술 내용

「1」사물, 일, 현상 따위를 추상적으로 이르는 말.

¶ 낫은 것/마실 것/먹을 것/입을 것/작은 것/좋은 것/큰 것/저기 보이는 것이 우리 집이다./너는 웃는 것이 예쁘다./아직 멀쩡한 것을 왜 버리느냐?/그는 밀가루로 된 것이면 뭐든지 좋아한다./고래가 물고기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그가 도둑질을 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2」사람을 낮추어 이르거나 동물을 이르는 말.

¶ 새파란 것이 어른에게 대든다./오늘 태어난 강아지 중에서 점무늬 있는 것이 제일 예쁘다./이런 발칙한 것 같으니라고. 감히 어른 앞에서 그런 짓을 해?

「3」((사람을 나타내는 명사나 대명사 뒤에 쓰여))그 사람의 소유물임을 나타내는 말. 능해04.

¶ 이 우산은 언니 것이다./내 것은 만지지 마./우린 이제 부부인데 내 것 네 것이 어디 있어.

「4」((‘-는/은 것이다’ 구성으로 쓰여))말하는 이의 확신, 결정, 결심 따위를 나타내는 말.

¶ 담배는 건강에 해로운 것이다./분명, 좋은 책은 좋은 독자가 만드는 것이다.

「5」((‘-르/을 것이다’ 구성으로 쓰여))말하는 이의 전망이나 추측, 또는 주관적 소신 따위를 나타내는 말.

¶ 저 얘기는 아마 열 번도 더 했을 것이다./울해도 어김없이 붉은 울 것이다./그렇게 놀다간 성적이 떨어질 것이다./이 제품은 틀림없이 인기를 끌 것이다./내일은 날씨가 좋을 것이다.

「6」((‘-르/을 것’ 구성으로 쓰여))명령이나 시킴의 뜻을 나타내면서 문장을 끝맺는 말.

¶ 공사 중이니 주의할 것./도시락은 각자 준비할 것./손을 깨끗이 씻을 것./내일 아침 일곱 시까지 학교로 모일 것.

등의 의미 항목 부분을 보다 세분화하여 ‘방법, 길’, ‘시간, 때’ 등을 더 명시하고 있으며 기능 면에서는 주로 완형 보문과 관련된 문형을 예시하면서 ‘설명, 인용’의 항목을 별도로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고려대』는 의미 기술에 있어서는 『표준』과 대동소이하지만 특정 문형에서 ‘사실을 강조하거나 설명’하는 기능이나 특정 대상을 ‘지정’하는 기능을 추가해 두었다.

(1)에 따르면 ‘것’의 성격은 어휘적 의미 특성과 통합 관계상의 통사적 특성으로 크게 구분된다. 우선 ‘것’의 의미 특성으로는 의미 기술 「1」을 기반으로 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반영된다는 점(「2」, 「4」, 「5」), 통합 관계에 있어서 대상의 소유주가 명시된다는 점(「3」) 등이 보인다.

또한 (1)에는 ‘것’이 보이는 일반적인 의존 명사의 통사적 특성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문법화 과정과 관련된 특성까지도 기술되어 있다. 먼저 ‘것’이 선행 관형어와 맺는 다양한 통합 관계 양상이 하위 구분된 각 용법의 용례에 제시되어 있다. 아울러 용법 「6」은 ‘것’이 특히 동사의 ‘-르/을’ 활용형 관형어와 통합 시 그 중 일부가 ‘-르/을 것’ 구성으로 재분석되어 명령의 화행을 표상하는 종결 형식으로 문법화된 사실을 반영하였다.

(1)의 양상을 정리하여 ‘것’의 분포 양상을 다음과 같이 유형화해 보자. 논의의 성격상 의미 특성보다는 주로 통합 관계 하의 양상을 중심으로 형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2) ‘것’의 통합 관계⁴⁾

가. 선행 통합 요소

- ㄱ. 관형사형 어미: ‘-는’, ‘-ㄴ’, ‘-ㄴ/은’, ‘-던’, ‘-르/을’
- ㄴ. 관형사
- ㄷ. 속격 조사: ‘의’
- ㄹ. 일부 체언 부류: 명사(언니), 대명사(내/네)

나. 후행 통합 요소

- ㄱ. 조사: 격조사, 보조사
- ㄴ. 지정 형용사: ‘이다’
- ㄷ. ∅

4) ‘관형어+‘것’+격조사’의 용례는 이익섭(2005: 64), 진염평(2013: 63) 등에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홍사만(2006)에서는 중세국어 자료에 드러난 ‘것’의 분포와 의미까지가 종합적으로 고찰된 바 있다. 아울러 진염평(2013), 홍사만(2006: 102) 등에는 ‘날것’, ‘헛것’ 등, ‘것’이 여기로서 단어 형성 과정에 참여한 예들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들은 통사론적인 결합, 즉 통합 관계 하에서의 ‘것’의 분포 양상과는 다른 층위의 현상이므로 본고에서 별도로 논의하지 않겠다.

(2)의 일부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이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우선 (2가ㄱ)에서 ‘-던’은 위 『표준』의 ‘것’ 용례에서 제시되지 않은 것을 필자가 임의로 추가한 것이다. ‘어제 입었던 것 멋지더라.’ 등의 예가 해당 관형사형 어미를 추가할 근거가 된다. 또한 (2가ㄴ)의 관형사가 ‘것’에 통합하는 용례도 『표준』에서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체언 부류에 속하는 어휘들이 선행 관형사와 통합하여 명사구로 확장될 수 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한 차원에서 ‘것’의 선행 통합 관계 양상에 이를 포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더욱이 (2가ㄷ) ‘의’ 역시 『표준』의 ‘것’ 용례에서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우리 모두의 것’ 등 일상적인 문장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2나ㄴ)의 ‘이다’를 학교 문법에서의 처리와 같이 서술격 조사로 간주한다면 (2나ㄱ)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은 임홍빈(2006) 등의 주장에 따라 ‘이다’를 정제 밝힘 기능의 지정 형용사로 보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로 다루지는 않겠다.

한편 (2나ㄷ)의 ‘∅’는 용법 「6」과 관련하여서 종결의 기능을 담당하는 ‘-르/을 것’ 등과 같은 형식에 추가로 후행할 수 있는 요소가 없음을 표시한 것이다.⁵⁾

(3) 가. *공사 중이니 주의할 것들!

나. *손을 깨끗이 씻을 것요!

(3)에서와 같이 문장 종결 형식에 후행하여 덧붙을 수 있는 특수한 부류인 ‘-요’, ‘-들’ 따위도 (2나ㄷ)의 경우에는 실현될 수 없다.⁶⁾ 그런데 이 (2나ㄷ)은 일반적인 의존 명사로서의 ‘것’과는 차이가 있다. 항을 달리하여 이 문제를 좀 더 논의해 보고자 한다.

5) 문장 부호는 논외로 처리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문장 부호의 기능적 중요성이나 수행 억양의 존재 등을 등한시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 둔다.

6) 간혹 인터넷 상에서 (3나)와 같은 문장들이 목격되기도 하나 이는 정상적인 용법의 용례로 보기 어렵다. 우리는 이와 같은 용례를, 비교적 규범에 자유롭고 화, 청자 사이의 관계가 모호한 경우에 출현하는 극단적인 경우로 파악한다.

1.2. ‘-르/을 것’의 종결 어미화

우리는 앞에서 ‘것’의 통합 관계 양상 (2)를 제시한 바 있다. 그 중에서 (2나ㄷ)에 해당하는 사항이 여전히 우리의 주목을 끈다. 이와 관련된 용례들은 (1)과 (3)에서 언급된 바 있는데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다시 가져와 보자.

- (4) 가. 공사 중이니 주의할 것.
- 나. 손을 깨끗이 씻을 것.

(4)는 모두 명령의 발화 효력을 갖는다. 명령의 발화 효력을 갖는 대표적인 문장 유형이 명령문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으므로 우선 명령문의 전형적인 구조적 특징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르/을 것’의 기능적 성격을 살피기로 한다.⁷⁾

(5) 명령문의 구조적 특징

- 가. 주어가 비실현되는 경향이 강하고 원칙적으로 2인칭 주어만이 허용된다.
- 나. 명령형 종결 어미가 실현된다.
- 다. 시제 선어말어미의 통합이 제약된다.
- 라. 시간 부사 등의 시간 표현의 통합이 제약된다.
- 마. 일정 용언만이 서술어 자리에 올 수 있다.

(5가)는 화자와 청자, 주어 문제에 관한 본질적 성격에 입각하여 맥락상 명령문의 주어 실현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함을 보이는 것이다. 또한 고성환(2003: 139)에서 언급했듯이 (4)가 명령문으로서 1인칭과 3인칭 주어를 허하지 않음을 나타낸 것이다.⁸⁾

7) 명령문의 특징과 용법, 특이한 명령 표현 등에 대한 종합적 논의로는 박영준(1994), 고성환(2003) 등이 참조된다. 특히 박영준(1994: 34-50)에서는 명령형 종결 어미의 검증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고성환(2003: 17-22)에서도 명령형 어미 목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8) 참고로 박영준(1994: 28-29, 31)에서는 명령문의 주어로 1인칭이 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유문을 명령문을 범주에 포함한다는 전제 하에 나온 것이다. 화자가

- (6) 가. *공사 중이니 우리가/그가 주의할 것.
- 나. *내가/영희가 손을 깨끗이 씻을 것.

(5나)에 관해서 본고는 ‘-르/을 것’을 명령형 종결 어미로 간주한 박영준(1994: 40)과 고성환(2003: 135~140)의 입장을 수용하는 편에 서 있다. 물론 어말어미로서 지녀야 하는 속성을 이 ‘-르/을 것’이 다 갖추고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아라’나 ‘-으라’와 같은 명령형 종결 어미들 역시 여타의 문장 종결 어미들과는 달리 많은 제약 하에 놓인다는 사실, 아울러 ‘-르/을 것’이 항상 자신이 실현된 문장의 마지막에 올 때, 전체 구성을 명령의 화행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관점의 타당성은 부인되기 어렵다.

또한 (5다)의 시제 선어말어미와의 통합 관계에 관해서도 박영준(1994: 35)에서 제시된 네 개의 검증 기준을 원용하여 (4)를 검증하면 다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⁹⁾

- (7) 박영준(1994)의 명령형 종결 어미 검증 기준 준수 여부
 - 가. 부정 명령의 ‘말-’ 실현이 가능할 것: 주의하지 말 것/씻지 말 것
 - 나. 간접 인용법으로 전환시 ‘-으라’가 올 것: 주의하라(고) 적은 메모/깨끗이 씻으라며
 - 다. 수행문으로 전환시 ‘-으라’가 올 것: 주의하라(고) 명령했다/씻으라(고) 명령했다
 - 라. 시제 형태소와 호응하지 못할 것: *주의했~~을~~ 것, *주의하~~는~~을 것/*씻었~~을~~ 것, *씻~~는~~을 것

(7)에서와 같이 일반적인 명령형 종결 어미의 행태를 그대로 보이는 ‘-르/을 것’ 형식은 시제 선어말어미와의 통합 관계에서도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우리는 ‘-르/을 것’ 형식이 문법화 과정을 거쳐 명령형 종결 어미로 바뀌었고, 그 결과 시제 선어말어미와도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자신을 청자로 삼는 내적 발화와 같은 특수한 맥락이 아닌 이상 명령문 주어는 1인칭이 될 수 없다.

9) 박영준(1994)는 청유문을 명령문에 포함하므로 이 논의에서 언급된 ‘-자’ 관련 사항은 제외하고 논의하겠다.

더욱이 (5라)에 대해서도 발화 이후의 그 수반력이 문제가 되는 명령문의 속성상, 논리적으로 (4)의 용례에서 시간 관련 표현과의 호응이 자유롭지 못할 것임이 당연하다.

- (8) 가. *공사 중이니 이미 주의할 것.
 가’. 공사 중이니 현재/앞으로 주의할 것.
 나. *어제 손을 깨끗이 씻을 것.
 나’. 당장/내일부터 손을 깨끗이 씻을 것.

(8)에서 나타나듯이 (4)의 용례들은 현재나 미래 관련 시간 부사어들과 호응할 수 있으나 과거를 지시하는 시간 부사어들과는 호응이 불가능하다. 이는 명령문이 지닌 논리적 속성에 기인한 결과로 일반적인 명령문의 양상과 정확히 일치한다.

(5마)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행위 표상의 전형적 동작 동사가 명령문의 서술어가 된다는 자명한 사실에 입각할 때 굳이 재론할 필요가 없다.

- (9) 가. *착할 것/*아름다울 것/*무서울 것…….
 나. 성실할 것/건강할 것/평안할 것…….

다만 (9나)와 같이 형용사 서술어가 ‘-르/을 것’과 통합할 때, 그 수용성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고성환(2003), 이승희(2006) 등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명령 수행자의 의도의 개입 가능성 여부나, 명령 자체보다는 기원이나 회구와 관련된 화용론적 맥락에서만 형용사가 명령문의 서술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명령문 구성과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항들은 논외로 하겠다.

이상의 논의에서 도출되는 결론은 ‘-르/을 것’ 형식이 이미 문법화 과정을 거쳐 명령형 종결 어미화 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형식의 일부에 불과한 ‘것’은 공식적으로 의존 명사로서의 정체성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즉, (1)에서 제시한 ‘것’의 성격 중에서 마지막 명령과 관련된 사항 「6」은 ‘것’의 일반적인 용법 기술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형태로서의 자격을

검증하고자 하는 ‘거/계/결’ 등과도 관련되지 않는다.

2. ‘것’ 관련 형식의 통합 양상

우리는 전 절에서 의존 명사 ‘것’의 분포와 통합 관계 양상을 전반적으로 고찰하고 형식화하였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것’과 관련된 형식들이 어떠한 양상으로 실현되는지를 구체적인 용례들을 통해 정리하고자 한다.

‘것’ 관련 형식들을 비교적 자세하게 분석하고 그 성격을 고찰한 최근의 논의로는 진염평(2013)이 있다. 이 논의에서 가져온 해당 형식들은 다음과 같다.

(10) ‘것’ 관련 형식

- 가. ‘거’
- 나. ‘계’
- 다. ‘결’

‘것’에서 도출된 형식들의 분포 양상은 (2)에서 정리한 ‘것’의 선, 후행 통합 관계를 그대로 적용해 보고 해당 용례들이 존재하는지를 살핌으로서 비교적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다.¹⁰⁾ ‘거’ 등의 선, 후행 요소와의 통합 양상을 (2)에 준하여 살펴보는 것이 ‘거’와 ‘것’의 관계를 살피는 첫 번째 작업이 된다. 그 의미 기능과 분포가 동일하다면 ‘거’ 등은 ‘것’의 이형태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것이 된다. 일정한 조건 하에서 예외 없이 그 분포가 변별되고, 해당 형식들의 분포 조건의 총합이 상기 형식들이 출현할 수 있는 조건의 전체 집합일 경우에 이형태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이제 앞서 언급한 말뭉치에서 추출한 용례를 중심으로 위 세 형식의 통합 관계 양상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용례의 검출 건수는 본고의 논의에 크게 관련되지는 않으나 참고로 제시하자면 ‘거’의 용례가 총 1689건,¹¹⁾ ‘계’는

10) ‘거’ 등의 형식이 맺는 선후 통합 관계 양상을 살핌에 있어서 직접 선, 후행하는 단위들을 기준으로 용례를 추출한다. 그런데 이 형식들에 서술어가 직접 후행 통합하는 용례는 따로 추출하지 않는다. 이미 이 형식들은 ‘거’ 뒤에 통합하는 조사 부류의 존재가 암시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총 8188건이, ‘결’은 총 3450건이다. 크게 선행 성분과 ‘거’ 등의 통합 관계, ‘거’ 등과 후행 성분의 통합 관계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한다.

2.1. 선행 성분 + ‘거/계/걸’ 통합 관계 양상

‘거’가 선행 성분과 통합한다고 할 때 이 성분들을 세부적으로는 관형사절, 관형사, 속격 조사구, 명사/대명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거’ 등이 관형사절을 관형어로 취할 때 특별한 제약은 발견되지 않는다.

- (11) 가. 이제 좀 어떻게든 냉정해져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졌습니다.
 - 나. 혼돈의 세상에선 혼돈이 오히려 자유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 다. 진우는 기왕 비랑 끝으로 내몰린 거 아예 떨어져 버리자 싶어 고개를 들었다.
 - 라. “형님이 늘 하던 거 말하면 되잖소?”
 - 마. 여러 가지로 과거 말해서 좋은 거 하나도 없었다.
 - 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겪날 거 하나도 없었다.

- (12) 가. 친구들과 전화로 수다를 떠는 게 유일한 즐거움이였다.
 - 나. 미국 생활 중 가장 싫은 게 바로 바퀴벌레였다.
 - 다. 항상 너에게 잘해주지 못한 게 마음에 걸린다.
 - 라. “고3때 다리 아프던 게 다시 재발해서 휴학의 위기도 맞고 있어.”
 - 마. 장기를 팔아서 한뼉친 보는 경우와 다를 게 없다.
 - 바. 어머니 음식 솜씨의 그 감칠맛을 덜을 게 없으리라.

- (13) 가. 진 씨가 강동 석유등잔이 까무룩히 죽어가는 걸 보며 말했다.
 - 나. 일단 집에 들어가 대강 숙제 같은 걸 해 놓고 가게로 출근했다.
 - 다. 그제서야 나는 조카의 말 수단에 말려든 걸 깨달았다.
 - 라. 그는 아까부터 내내 궁금히 여기던 걸 끝내 옆 사람에게 묻고 말았다.

11) 이 수치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빈도 상 별반 의미가 없기는 하나, 동일한 형식의 간투사, 일반 명사, 고유 명사들이 함께 포함된 것이다. 물론 본고의 용례는 모두 의존 명사에 해당하는 것이다.

- 마. 김 박사는 애초부터 실험 결과가 다를 걸 예상하고…….
- 바. 김 씨는 내 입에서 이런 애매한 대답이 나을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11~13)에서 확인되듯이 관형사절과 ‘거’ 등의 통합 용례에는 현재 진행이나 상태의 ‘-ㄴ/는’ 관형사형, 동사의 과거 표시의 ‘-ㄴ/은’ 관형사형, 과거 행위나 상태 관련인 ‘-던’ 관형사형, 추정이나 미래 관련 양태 ‘-ㄹ/을’ 관형사형 등이 모두 검출된다. 이러한 양상은 관형사절이 ‘것’과 통합하는 양상과 정확히 일치한다.¹²⁾

다음으로 관형사가 해당 형식에 선행 통합하는 대표적인 용례는 다음과 같다.

- (14) 가. “니가 지금 이런 거 저런 거 가릴 때냐?”
나. “까짓 거 뭐, 명년에는 논산 가는데…….”
다. “뭐 더 먹을래? 다른 거 더 시킬까?”
라. “사내는 그런 문제라면 전혀 별 거 아니라는 듯이 말했다.”

- (15) 가. 뭐 그런 게 다였던 것 같다.
나. “넌 까짓 게 뭘데 남의 부부 일에 밤 나라 대추 나라야!”
다. 어느 게 과학적 동기에서 그런 건지 구분하기란 매우 힘들다.

- (16) 가. 그런저런 걸 가릴 사이가 이미 아닌 듯해서…….
나. “그 까짓 걸 얘기해서 뭇해요?”
다. 젊은 애들을 5명 뽑아 처음서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가르쳤다.
라. 오빠는 별의별 걸 다 가지고 있었다.

지면상 모든 용례를 제시하지는 못했으나 관형사와 ‘거’ 등의 통합 용례는 ‘거’가 지닌 의미 속성을 시사한다. ‘것’과 마찬가지로 ‘거’도 의미적으로 비

12) ‘거’ 통합 관계를 위시하여 ‘게’나 ‘걸’ 구성 전반에 걸쳐 편의상 ‘-다는’, ‘-라는’ 등의 인용절 선행 통합 구성에 대해서는 구분하여 언급하지 않는다. 속성상 일반적인 관형사절 구성의 테두리 내에서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어 있고 이로 인해 어떤 대상을 한정하거나 지시하는 기능을 하는 관형사들의 거의 전 부류가 통합 가능한 것이다.

검출 용례들에서는 주로 어떤 대상을 지시하거나 범박한 속성을 표현하는 관형사 부류가 주로 실현됨을 알 수 있다. ‘이런(요런), 저런, 그런, 그런저런’ 등의 지시 및 대용 기능의 관형사 부류, 양태적 속성이 강한 관형사 ‘까짓’을 기반으로 하는 ‘까짓, 그까짓, 네까짓, 제까짓, 제깻’ 등의 관형사 부류, ‘모든, 어떤’ 류의 총칭, 의문 관형사 부류, 그 외에 이질성을 부각하기 위한 ‘별’, ‘다른, 판’이나, 강한 양태적 속성을 지닌 ‘그딴’ 등의 용례가 검출된다. 대체로 이들 용례는 지시 기능과 화자의 판단을 위주로 한 양태 표현 기능을 담당하는 관형사 부류가 ‘거’ 등에 통합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통합 양상 역시 관형사절 통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것’의 양상과 대동소이하다.

한편 속격 조사구가 ‘거’ 등에 선행 통합하는 용례는 극히 드물게 검출된다.

- (17) 가. “나는 부러진 옥수수 알갱이 두 개를 호주머니 속의 거 꺼냈어.”
 나. “도대체 이놈의 게 나라야?”
 다. “아이구, 쓰다. 이런 놈의 걸 뭐 하러 그렇게 마셔댔을꼬.”
 다’. “난 놈의 걸 절대로 안 훔친다.”

- (18) 자기 대학의 것뿐만 아니라 국내의 타 대학의 것 그리고 가능하다면, 국외 대학들의 것들도 소개할 필요가 있다.

말뭉치에서 속격 조사 ‘의’가 ‘거’와 ‘게’에 선행 통합한 용례는 (17가, 나)만이 검출되었고, ‘걸’에 통합한 용례는 (17다, 다’)의 두 용례만이 검출되었을 뿐이다. 해당 형식들의 구어적 속성 때문일 것인데, 일상 담화에서 격조사가 빈번하게 비실현되는 현상과도 관련이 된다. 아울러 담화에서 속격 조사구가 ‘것’에 선행하는 구성이 드문 경향도 파악할 수 있다. (18)은 상기 말뭉치에서 검출된 총 19107건의 ‘것’ 출현 문장 중 무작위로 뽑은 1000개의 문장에서 속격 조사구가 ‘것’에 선행하는 구성이 나타난 유일한 용례이다. ‘거’ 등이 ‘것’으로부터 도출된다는 점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할 때, (17)과 같은 용례가 드물다는 것은 특이한 일이 아니다.¹³⁾

이제 해당 형식들이 명사나 대명사를 직접 선행 성분으로 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19) 가. 지훈: (지연의 코를 짚으며) “이 코는 누구 거야?”

지연: 지훈이 거!

나. “바보, 그것도 몰라. 서답이야. 우리 엄마 거!”

다. “밥을 먹지 말고 재각기 싸 가지고 가서 이 짚 거(것) 다 하고(일을 마치고)나서 저 짚 거 하고 동네사람들이 몰려 땡기며 그렇게 하라고...”

라. “신 엄마 거와 동생 거와 사고, 옷은 아버지 거, 나, 누나 반스 하나하고...”

(19)는 명사가 ‘거’에 직접 통합한 검출 용례의 전부이다. 일반 명사 ‘집’을 위시하여 인명이나 호칭 명사, 의문 대명사들이 보인다. 모두 인간과 관련된 형식들인데, ‘것’과 마찬가지로 이 구성에서의 ‘거’ 역시 선행하는 명사의 소유 대상을 표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상은 대명사가 ‘거’에 직접 선행하는 경우에도 대동소이하다.

(20) 가. “이건 니 거 이건 내 거, 하는 우스운 짓은 결코 벌어지지 않아요.”

나. “우리 거 먼저 쓰고.”

다. 지훈: (지연에게) 이 발가락은 누군 거야?

지연: 당신 거!

(20)에서 확인되듯이 ‘거’는 인칭 대명사를 선행 관형어로 둘 수 있다. 해당 말뭉치에서 “자동차는 언디 거가 좋아요?”나 “그 카메라가 언제 거인지 기억도 안 난다.”와 같이 장소나 시간 등을 지칭하는 대명사 통합 용례가 검출되지는 않았다.¹⁴⁾

13) 참고로 명사가 속격 조사 없이 단독으로 ‘것’에 선행하는 다음과 같은 용례도 드물지 않게 나타난다.

얼핏 독창적인 발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외식 업계의 고질적인 ‘일본 것 베껴 먹기’-고상한 표현으로는 벤치마킹-에서 시작한 것이다.

한편 ‘게’에 선행하는 명사와 대명사의 통합 용례는 다음과 같다.

(21) “우리 중국 게 무조건 최고야. 멍호, 멍호!”

명사가 ‘게’에 직접 선행한 용례도 (21)만이 검출되었을 뿐이다. 아울러 대명사가 ‘게’에 선행하는 용례는 검출되지 않았다. 의존 명사의 관형어 성분 중에서 명사나 대명사가 드물게 검출된다는 점은 ‘게’의 속성이 어떠한가에, 소유 관계 구성에서 속격 조사구나 인칭 명사, 인칭 대명사가 선행하는 여러 구성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명사나 대명사가 ‘걸’에 통합하는 용례를 살펴보자.

(22) 가. “아저씨 걸 먹여 줬다니, 그건 하늘에 계신 하느님 아버지를 모독하는 말이에요.”

나. “태명이가 자꾸 재명이 걸 탐내는 거야.”

(23) “자기 걸 왜 남한테 줘요?”

(22), (23)에서 확인되듯이, ‘걸’에 선행하여 통합한 명사와 대명사 부류는 (19), (20)에서 살핀 ‘거’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 결국 ‘거’ 등의 형식이 관형어로 명사나 대명사를 취하는 양상은 ‘것’의 경우와 전반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 ‘거/게/걸’ + 후행 성분 통합 관계 양상

이제 ‘거’ 등이 후행 요소와 맺는 통합 관계 양상을 살피기로 한다. 후행 성분으로는 조사 부류와 (2나ㄷ)으로 언급한 바 있는 ∅ 관련 사항이 있을 것이다. 우선 검출된 용례들에서 보이는 ‘거’와 격조사, 보조사와의 통합 양상은 다음과 같다.

14) 이는 이러한 통합 관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말뭉치의 규모나 성격의 기인한 현상일 뿐이다. 이는 후술되는 ‘게’ 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24) 가. “자취생들이 주인집 장독대며 연탄창고며를 풀방구리 드나들듯
 하며 슬개슬개 빼내먹은 ‘주인 거’가 아마 솔찮지요?”
 나. “신 엄마 거와 동생 거와 사고, 옷은 아버지 거, 나, 누나 반스
 하나하고.”

‘거’로 검색하여 검출된 용례 중 ‘거’에 후행하는 격조사는 ‘가’와 ‘와’ 두 개뿐이다.¹⁵⁾ 이러한 양상은 ‘거’가 지닌 구어적 성격과 그로 인해 격조사의 비실현이 잦을 수밖에 없으리라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용례들은 약간의 설명을 요한다.

- (25) 가. 구름을 몇 개 넘어가면 염소를 치는 여동생 집이 있다는 거였다.
 나. “정확히 말해 아름다운 이념의 감각적 현현(顯現), 이데아가 감각적으로 나타난 거(Scheinen)라고 했죠.”

‘이다’를 지정 기능의 의존 형용사로 보는 입장에 서면 (25가)는 ‘거’가 격조사와 통합한 구성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학교 문법에서 인용격 조사라고 규정하는 ‘라고’의 용례 (25나)는 이선웅·이은섭(2013: 266~268)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맥락에서, 조사가 아닌 어미가 통합한 구성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보조사가 ‘거’에 후행 통합한 용례는 상당히 많은 수가 검출된다.

- (26) 가. “아빠, 내 거는 쪼끄만데 아빠 거는 크~네.”
 가’. 봄에 나뭇가지에 돋는 잎을 그리는 건 나무를 그리는 일이다.
 나. 영국사회에서 농민문제가 과연 그 시대의 기본적인 모순을 얼마

15) 그러나 ‘거’에 여러 격조사를 통합한 구성, 가령 ‘거를’, ‘거로’, ‘거에’ 등을 검색어로 지정해 보면 다음과 같은 용례가 추가로 검출된다.

- ㄱ. 부모님들은 텔레비전을 보면 그런 거를 왜 보냐며 …….
 ㄴ. “언제까지 네 품안에 있는 거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ㄷ. “그러니까 제발 내가 묻는 거에 대답이나 해 줘.”

그러므로 말뭉치에서 용례 검출 방식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모종의 보완 작업이 필요하나 현 단계는 ‘거’와 여타 관련 형식들의 분포 양상이 보이는 경향성을 파악하는 정도의 작업이므로 여기서 보다 정교한 조정 작업은 편의상 수행하지 않겠다.

나 대표하는가 하는 거도 논란의 여지가 있고…….
 다. “너는 녹차나 우롱차, 그런 거만 마시잖아?”

(26)은 ‘거’에 ‘는, 도, 만’ 등으로 대표되는 다양한 보조사 부류가 직접 후행 통합함을 보여주는 일부 예이다. 별도의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는 않으므로 용례 일부를 제시하는 정도로 논의를 맺는다.

‘거’의 경우와는 달리, ‘게’나 ‘걸’이 격조사나 보조사와 통합한 용례는 말뭉치에서 검출되지 않는다. 이는 당연한 결과로 ‘게’는 주격 조사구의 일부이며, ‘걸’은 대격 조사구의 일부이다. 즉 일반적으로는 주격, 대격 조사에 다른 격조사나 보조사가 후행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만 ‘걸’의 경우에 ‘걸로’ 구성의 용례 252개가 검출되는데 이 문제는 후술된다.

한편, 앞에서 우리는 ‘-을 것’ 구성과 관련된 사항을 일반적인 의존 명사의 이형태 관련 논의 대상에서 배제한 바 있다. 그런데 문제의 ‘거/게/걸’이 과연 (1)의 용법 「6」과 무관한가 하는 일말의 의구심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추가로 ‘거/게/걸’이 명령의 ‘-르/을 것’과 같은 구성에 나타나지는 않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 당연히 세 가지 형식 모두 ‘-르/을 것’과 같은 명령형 종결 형식으로 기능하지 못한다.

(27) 가. *공사 중이니 주의할 거/걸/게!

나. *손을 깨끗이 씻을 거/걸/게!

(27)과 같은 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거/게/걸’이 ‘-르/을 것’의 ‘것’과는 달리 명령형 종결 형식으로서의 문법화 과정과는 무관함을 보여준다.¹⁶⁾ 특히 이는 ‘거’의 경우에서 볼 때, 이 형식이 ‘것’과의 관계에서 보이는 거의 유일한 차이점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소수이기는 하나 외형적으로 ‘게’로 문장이 종결되는 용례가 총 9건 검출된다. 몇몇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6) 물론 우리가 ‘걸’이 감탄어나 추정의 ‘-ㄴ/는/은 걸’, ‘-르/을걸’ 등의 형성 과정에 중요하게 관련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문제는 현재 본고의 논의와 거리가 있으므로 직접 언급하지 않을 뿐이다.

(28) 가. “억울했어. 지난 세월을 그토록 없이 살았다는 게.”

나. “아, 좀 좋우, 발발 떨고 사는 것보다 헤프게 사는 게.”

(28)에서 알 수 있듯이 ‘게’로 끝맺는 문장은 모두 선행문의 후보층 성분의 성격을 갖는다.¹⁷⁾ (28가)에서는 각각이 분립되어 종결된 선, 후행문 간의 관계에서 후행문이 선행문 서술어의 주어 성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편 형식적으로는 종결되지 않고 쉽표로 연결된 복합문 구조인 (28나)의 경우 역시 선행절 서술어의 주어 성분 역할을 ‘게’ 구성이 담당한다.

이는 ‘-르/을 것’ 구성과는 달리, ‘게’가 원 형식인 ‘거’와 주격 조사의 통합 구성, 즉 주격 조사구라는 정체성을 충실하게 유지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즉 ‘-르/을 것’이 명령형 종결 어미로 문법화되는 현상과 같은 것이 주격 조사구의 일부라는 정체성을 지닌 ‘게’의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또한 ‘걸’이 후행 요소와 통합하지 않고 문장 종결의 기능을 하는 듯한 경우의 용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검출되었다.

(29) 가. 난, 이제 알아. 당신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걸.

나. “그 기록 정부 문서보관소에 다 있을걸.”

다. “로마는 날씨가 좋은걸!”

라. “여기서 자면 얼어 죽을걸?”

마. “글쎬다. 하도 오래 전 일이라서 다 잊어 먹었는걸.”

‘걸’이 문장의 종결 위치에 분포하는 용례는 그 성격상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29가)의 경우로, ‘게’의 경우에서 언급한 (28)과 같이 후보층 성분으로 실현된 것이고, 둘째는 (29나~마)의 경우와 같이 선행하는 선어말 어미들과 통합한 형식이 이미 문법화 과정을 거쳐 독자적인 형식으로 굳어진 것들이다. 즉 전자의 경우는 의존 명사 ‘것’에서 도출된 ‘거’의 대격 조사구 ‘X-걸’이 문장의 후미에 위치하게 된 후보층적 성격의 것이며, 후자는 ‘-을 것’과 같이 의존 명사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문장 종결 형식의 일부가 된

17) 후보층 구문의 성격과 특징에 대해서는 이정훈(2009), 이은섭(2011), 이선용(2012) 등을 참조할 것.

것이다. 후자는 본질적으로 (2나ㄷ)과 같은 성격의 것이나 역시 의존 명사임을 전제로 한 논의와는 무관하다.

III. ‘것’ 도출 형식의 성격 재조명

지금까지 우리는 ‘것’에서 도출되는 형식인 ‘거’, ‘계’, ‘결’의 분포 양상을 실제 말뭉치 자료를 통해 살펴 왔다. 이를 근거로 우리는 ‘거’, ‘계’, ‘결’이 ‘것’의 이형태가 아님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위의 형식들이 지닌 성격에 대하여 몇 가지를 더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거’, ‘계’, ‘결’이 보여주는 각각의 개별적 특성과 관련된 것이다. 우선 ‘것’과 ‘거/계/결’의 관련성을 정리한 후, ‘결’의 문제를 좀 더 논의하기로 하겠다.

1. ‘것’과 ‘거/계/결’의 관계

전 장에서 ‘거/계/결’의 선, 후행 통합 관계를 고찰한 결과를 정리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도표를 얻게 된다.

(30) ‘거/계/결’의 통합 관계

‘거/계/결’의 선, 후 통합 관계									
	성분	‘거’	‘계’	‘결’		성분	‘거’	‘계’	‘결’
	선행	관형사절	○	○		○	후행	격조사	○
	관형사	○	○	○		보조사	○	×	×
	속격 조사구	○	○	○		∅	×	×	×
	명사/대명사	○	○	○					

(30)을 바탕으로 하여 전 장에서 살핀 ‘것’과 그 관련 형식들의 상호간의 관계는 일단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31) 가. ‘거’는 ‘것’이 나타나는 위치에 큰 제약 없이 분포할 수 있다.

나. ‘계’는 선행 통합 관계에서만 ‘것’과 일치하는 분포 양상을 보인다.

다. ‘걸’은 선행 통합 관계에서만 ‘것’과 일치하는 분포 양상을 보인다.
라. ‘걸’은 예외적으로 부사격 조사 ‘로’와 통합할 수 있다.

(31가)는 ‘거’가 진염평(2013)의 주장과는 달리 ‘것’의 이형태가 아님을 보이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다. 어떤 형태소의 이형태들이란 그 의미와 기능이 전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특정 환경에서만 배타적으로 분포하는 것이다.¹⁸⁾ 그러나 전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거’의 분포는 명령형의 종결 형식으로 실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확히 ‘것’의 분포와 일치한다. 특정한 조건 하에서 ‘것’과 ‘거’가 교체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둘을 이형태 관계로 상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거’는 ‘것’의 수의적 변이형일 뿐이다.¹⁹⁾

(31나, 다)는 두 가지 사항을 함축하고 있다. 첫째는 ‘게’와 ‘걸’이 ‘것’의 수의적 변이형인 ‘거’에서 도출된 형식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이 두 형식은 본질적으로 다른 층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걸로’의 경우를 제외한 ‘걸’과 ‘게’는 ‘거’와는 달리, 단어나 형태소가 아닌 통합 형식, 즉 조사구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앞 장에서의 고찰과 이를 정리한 (30)에서 잘 나타나듯이 이 두 형식에 여타의 조사가 후행 통합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사항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문제의 ‘게’와 ‘걸’이 후행 통합 관계에서 ‘것’이나 ‘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된다.

(31라)는 ‘걸’이 ‘것’과 마찬가지로 부사격 조사 ‘로’와 통합하는 용례가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31다)로 정리된 사항에 대한 반증예가 되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걸’의 성격이 그리 단순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문제는

18) 교체의 성격과 이형태의 조건에 대한 최근의 논의로는 이혁화(2002), 고영근(2005), 김유범(2008), 박재연(2010), 이홍식(2012) 등을 참조할 수 있다.

19) 여기서 수의적 변이형은 특정 조건 하에서만 배타적으로 실현되는 이형태와는 다른 개념이다. 이와 유사한 성격의 용어로는 자유 변이형이 있다. 자유 변이형은 서정수(1996: 28)에서 예시된 ‘노을/놀’, ‘외우다/외다’ 등과 같이 형식의 차이가 의미나 기능의 차이를 담보하지 않는 변이형으로 축자적인 차원에서 그야말로 자유롭게 교체되는 형식이다. 그런데 역사적 변화나 방언 차, 문어/구어의 환경 등을 엄밀하게 고려하여 실현 조건을 제약한다면 이와 같은 개념은 거의 성립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자유 변이형보다는 수의적 변이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절을 달리하여 설명될 것이다.

지금까지 살핀 ‘거’ 등의 통합 관계 양상을 볼 때, ‘것’에서 도출된 ‘거’가 ‘것’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형식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분포 역시 동일하므로 이 형식은 ‘것’의 이형태가 아니다. 문체론적 조건이나 통사적 조건 등을 거론하기에는 그 조건의 엄밀성이 부족하고, 이를 이형태로 인정한다면, 이형태의 외연이 지나치게 넓어져 결국 이 개념은 별반 무소용의 허울만 남을 것이다. 결국 ‘거’, ‘게’, ‘걸’ 중에서 ‘것’과 관련하여 직접 대응되는 것은 ‘거’ 하나인데, 이 ‘거’조차도 특정 조건 하에 교체되는 이형태가 아닌 수의적 변이형임이 확인된 셈이다.

2. ‘걸’의 성격

앞에서 우리는 ‘게’가 ‘것’의 수의적 변이형인 ‘거’에 ‘이’가 통합한 주격 조사구이므로 ‘것’과 같은 의존 명사의 차원에서 다룰 수 없음을 언급하였다.²⁰⁾ 아울러 ‘걸’도 ‘거’와 ‘르’가 통합한 대격 조사구라는 측면에서는 ‘게’와 동일한 성격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 참고로 우리는 ‘걸’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 ㄱ. 흥정이 깨진 걸 알아채고 그가 내게 오더니 난데없이 악수를 청했다.
- ㄴ. “나한테 섭섭해서 그러는 걸 거야.”
- ㄷ. 머지않아 김 군이 연락할 께다.

(ㄱ)의 ‘걸’은 ‘게’와 마찬가지로 ‘것’의 변이 형식인 ‘거’에 대격 조사가 통합한 구성이다. 그러나 (ㄴ)은 ‘거+이+-르’ 통합 구성의 축약형으로서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우리는 일부 논의가 ‘것’의 이형태로 간주한 ‘거’나, 거기에 조사 등의 문법 단위들이 통합한 ‘게’, ‘걸’ 등이 다른 성격의 단위임을 누차 언급한 바 있다. 조사가 아닌 ‘이다’ 구성의 활용형이 음운론적 축약을 통해 ‘걸’과 동일한 형태로 현현된 사항 역시 동일한 성격의 것이다. (ㄷ)을 보면 ‘거’가 ‘이다’와의 통합 시 음운론적 축약이 발생하여 형성된 ‘게’가 보이는데, 이는 ‘거’에 ‘이다’의 어간이 통합한 것이므로 전 절에서 다른 ‘게’의 항목에서도 따로 기술하지 않은 바 있다. 동일한 차원에서 본고는 (ㄴ)의 ‘걸’에 대해서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

- (32) 가. 맛있는 거 먹고 멋진 거 살래.
 나. 맛있는 거를 먹고 멋진 거를 살래.
 다. 맛있는 걸 먹고 멋진 걸 살래.
 라. *맛있는 걸을 먹고 멋진 걸을 살래.

(32가, 나, 다)를 보면 ‘걸’이 대격 조사구임이 쉽게 드러난다. 일반적으로 직접 통합하는 선행어의 마지막 음절에 음절 말 자음이 존재하지 않을 때, 대격 조사 ‘ㄱ’과 ‘ㄹ’의 교체 현상이 수의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은 기지의 사실이다.²¹⁾ 아울러 ‘거’가 대격 조사와 통합할 수 있는 반면에, (32라)에서 확인되듯이 ‘걸’은 대격 조사와 통합할 수 없다. ‘걸’이 대격 조사구이므로 위와 같이 국어의 일반적인 조사 통합 제약에 따라 별도의 격조사나 보조사와 통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한다. 전장에서 언급한 말뚱치 용례 252개와 진염평(2013)에서 제시한 용례들이 그러하다. 논의의 편의상 후자의 예들로 논의를 진행해 보자.²²⁾

- (33) ‘걸로’의 용례(진염평(2013: 71)의 (17가))
 가. 필기시험 대신 구두시험 보는 걸로 중간고사를 대체하겠습니다.
 나. 그렇게 작은 걸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칼이 없으면 이걸로 자르세요.
 라. 좀 더 싼 걸로 사겠습니다.

아울러 (33)은 다음과 같이 임의로 교체될 수 있다.

21) 이는 통시적 차원에서 김완진(1975)에서 언급된 형태소 증가 현상을 반추하게 한다.
 22) 진염평(2013: 71)에 제시된 원래 용례 중 필요한 것만 발췌한다. 원 논의에는 이 외에도 ‘그리하’가 후행 상정될 수 있는 용례들(‘좀 더 일찍 출발할 걸. (그랬어요)’ 등)까지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것’에 대비되는 ‘걸’의 독자적 성격을 부각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는 온당한 논의가 아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제외한 예들은 문법화 과정에 대한 논의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33') 가. 필기시험 대신 구두시험 보는 것으로(거로) 중간고사를 대체하겠습니다.

나. 그렇게 작은 것으로(거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칼이 없으면 이것으로(이거로) 자르세요.

라. 좀 더 싼 것으로(거로) 사겠습니다.

또한 이 ‘걸’은 다음과 같은 양상도 보인다.

(33") 가. *필기시험 대신 구두시험 보는 걸(것/거) 중간고사를 대체하겠습니다.

나. *그렇게 작은 걸(것/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칼이 없으면 이걸(것/거) 자르세요.

라. *좀 더 싼 걸(것/거) 사겠습니다.

(33")과 같이 ‘걸’이 ‘로’ 없이 나타날 경우에는 (33)의 해석이 불가능하다. ‘관형어 걸’ 구성이나 ‘이걸’이 부사어로 해석될 수 없으므로 어색해지거나 아예 다른 의미의 문장이 되는 것이다. 이는 수의적 변이형 관계의 ‘것’과 ‘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이 두 형식의 경우, ‘로’를 제외한 조사 통합시 대체로 해당 조사 없이 실현되어도 그 문장의 적격성에 이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걸’이 ‘것/거’에 비해 훨씬 심하게 제약된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33, 33', 33")의 예들로 미루어 볼 때, 우리는 ‘걸’을 대격 조사구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는 ‘것’을 기원으로 하여 도출된 변이형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문제의 ‘걸’이 부사격 조사 ‘로’에 국한되어 있기는 하나 ‘게’와는 달리 격조사와 통합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걸’의 출현이 ‘것/거’와 상보적 분포 양상을 보이는 것이 아니므로 이들을 이형태 관계 하에 둘 수도 없다. 다만 이형태 관계에서 언급되는 음운적 조건과 형태·어휘적 조건 등을 원용한다면 ‘걸’의 후행 통합 관계에 관련된 조건을 다음과 같이 상정할 수는 있겠다.

(34) ‘걸’의 후행 통합 분포 조건

가. ‘걸’은 조사 중 부사격 조사와 통합할 때만 나타날 수 있다.

나. ‘걸’은 음절 말 자음 ‘ㄹ’로 인해 ‘으로’의 음운론적 이형태인 ‘로’와만 통합한다.

(34)는 ‘걸’이 특정 조사와 통합할 때만이, 아울러 음운론적으로도 특정한 조건 하에서만 실현됨을 보인 것이다.²³⁾

한편 이상의 사항들 이외에도, ‘걸’과 직접적으로 변이형 관계를 맺는 형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걸’의 형성과도 관련된 사항인데 즉, ‘걸’을 도출하는 원 형식이 ‘것’과 ‘거’ 중 어느 것인지를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 이 논의의 수행에 있어서 극히 유용한 예가 존재한다.

(35) 오늘 저녁은 뭘로 할까?

(35)는 의문 대명사 ‘뭘’이 실현된 예문으로서 정확히 문제의 ‘걸’과 평행한 용례이다. 여기서 우리는 일단 ‘뭘’이 ‘무어’의 모음 축약형이고,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무어’는 ‘무엇’에서 뒤 음절 말 폐쇄음 [t]가 탈락하여 형성된 것임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35)의 ‘뭘’은 ‘무엇>무어>뭘’의 과정을 거친 ‘뭘’이 ‘로’와 통합하는 과정에서 ‘ㄹ’이 덧난 것으로 볼 수 있겠다.²⁴⁾

23) 그런데 체언과 조사 부류의 통합을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전통문법적인 관점에서는 체언과 조사의 통합을 곡용이라는 형태론적 관점에서 파악한 바 있다. 그렇다면 (34)는 ‘걸’이 형태론적 조건 하에서 실현될 수 있는 형식이라고 보는 셈이다. 아울러 ‘걸’을 특정 어휘로서의 조사 ‘로’ 앞에서만 실현되는 것으로 파악한다면 이를 엄격한 어휘적 조건 하에 실현되는 형식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능적 차원에서 조사를 통사원자로 간주하고 이들 통사원자들이 순차적으로 교착된다는 관점을 취한다면 이는 다른 설명이 요구된다. ‘걸’과 ‘로’의 통합은 통사원자와 통사원자의 통합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제약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걸’을 통사론적 조건 하에 실현되는 형식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진엽평(2013)에서는 이러한 성격에 주목하여 ‘걸’을 아예 통사론적 조건의 이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게’와 ‘거’마저도 동일하게 간주한다. 그러나 통사론적 조건 하의 이형태 개념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 형식들을 ‘것’의 이형태로 보는 견해가 설득력을 지니기는 어렵다.

이상의 사항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결’을 모종의 과정을 거쳐 직접 ‘것’으로부터 도출된다기보다는 그 변이형인 ‘거’가 ‘로’와 통합하는 과정에서만 실현되는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 즉, ‘결’은 ‘거’의 수의적 변이형인 것이다. 물론 ‘결’이 특정 조사 앞에서만 실현된다는 제약이 있으나 이 경우에 ‘거’와 상보적 분포를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형태가 될 수는 없다.²⁵⁾ 그리고 (33) 이하의 용례들과 그에 대한 설명에서 나타난 ‘결’과 ‘것’과의 동질성은 ‘결’의 원 형식인 ‘거’와 ‘것’의 동질성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결’을 ‘거’로부터 도출된 변이형으로 보는 우리의 판단에 하등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IV. 결론

‘것’에서 도출된 ‘거’, ‘게’, ‘결’은 각각의 성격이 동질적이지 못하다. ‘거’는 ‘것’의 수의적 변이형이고 ‘결’은 ‘거’의 수의적 변이형이다. 반면에 ‘게’는 그 층위가 다른 주격 조사구의 일부이며, 대부분의 ‘결’은 대격 조사구의 부분 일 뿐이다. 이들을 모두 이형태로서 파악하는 것은 교체나 이형태의 개념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 되는 형태와 분포, 기능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견해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간략히 정리해 보자.

첫째, ‘것’에서 도출되는 형식은 ‘거’, ‘게’, ‘결’이 있다.

둘째, ‘것’은 ‘-르/을 것’과 같이 문법화된 특정 구성의 일부로 실현되기도

24) 중세 국어 시기에는 ‘으로’가 ‘르로’ 형식으로 실현되는 일이 있었으며, 일부 명사는 이 형식과 통합하는 것이 보다 전형적이었다. 이를 염두에 둔다면 ‘결로’ 구성은 사실 ‘거’가 ‘으로’의 선대 형식인 ‘르로’와 통합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고도 하겠다.

25) 다만 이러한 결론을 확정하기 전에 한 가지 사항을 더 감안해야 하는데 이는 앞서 기술한 ‘결’에 대한 통시적 사실과 관련된다. 즉, ‘결’이나 ‘필’과 같이 극히 제한된 실현 양상을 보이는 형식들을 원 형식의 변이형으로 상정하는 것은 지극히 공시적인 입장인 것이다. 통시적으로 보았을 때는 소위 ‘화석형’에 가까운 ‘결’을, 과연 공시적 관점에서 수의적으로 교체되는 변이형으로 규정하는 것이 온당한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후고를 기약한다.

하는데, 이 경우는 의존 명사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였으므로 ‘거’, ‘게’, ‘걸’의 성격 구명 문제와는 무관하다.

셋째, ‘것’에서 도출된 ‘거’, ‘게’, ‘걸’은 ‘것’과 상보적 분포 관계에 놓이지 않는다.

넷째, ‘거’는 ‘것’과 거의 자유롭게 교체되는 수의적 변이형이다.

다섯째, ‘게’와 대부분의 ‘걸’은 각각 주격 조사구와 대격 조사구의 일부로서 형태소나 단어가 아니므로 ‘것’과 다른 층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여섯째, 대격 조사구의 일부가 아닌 ‘걸’이 존재하는데, 이 형식은 부사격 조사 ‘로’ 앞에서만 실현된다는 강한 제약 하에 놓인, ‘거’의 수의적 변이형이다.

이제 남은 문제들을 추가로 제시하면서 논의를 맺고자 한다. 우선 변이형의 개념을 보다 정확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언급한 변이형, 혹은 수의적 변이형은 전통적으로 교체 현상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이형태와는 개념적으로 다른 것이다. 상보적 분포의 측면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거’와 ‘걸’을 동일한 성격의 수의적 변이형이라는 개념에 모두 수렴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거’와 ‘걸’의 제약 차이가 심한데 이를 동일한 변이형의 범주에 두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의문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개념적으로는 변이형의 유형 역시 세분화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비교적 자유롭게 실현되는 수의적 변이형과, 제약이 심해서 자유롭게 실현될 수는 없으나 특정 분포 환경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소위 ‘준(準)수의적 변이형’을 상정하고 문제의 ‘걸’을 후자로 간주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다.

다음으로는 ‘-ㄱ/을 것’과 ‘걸’의 현행 사전 처리가 수정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앞서 선행 연구들에서 논파된 것과 같이 ‘-ㄱ/을 것’은 명령형 종결 형식으로서 의존 명사 항목에서 같이 기술되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거’의 수의적 변이형으로 간주된 ‘걸’의 특정 정보 역시 사전에 명세될 필요가 있다. 이는 어휘부 처리와 운용의 관점에서 자유 변이형들을 인출하기 위한 조건을 어떤 부문에 어떻게 명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관련된다. ‘것’과의 연관성을 전제로, ‘거’, ‘걸’이 별도로 등재됨을 명시해

야 한다. 아울러 이들이 어떠한 조건 아래서 적절하게 인출될 것인지의 조건을 어휘부 정보에 추가함으로써 이들 모두가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항 역시 분명히 해 두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국어사전편찬실 편,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9.
- 고성환, 『국어 명령문에 대한 연구』, 역락, 2003.
- 고영근, 「형태소의 교체와 형태론의 범위-형태음운론적 교체를 중심으로」, 『국어학』 46, 2005.
- 국립국어원 편,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 김완진, 「음운론적 유인에 의한 형태소 증가에 대하여」, 『국어학』 3, 1975.
- 김유범, 「이형태 교체의 조건과 중세국어 이형태 교체의 몇 문제」, 『국어국문학』 149, 2008.
- 남기심, 「불완전명사 ‘것’의 쓰임」, 『갈음 김석득 교수 회갑 기념 논문집』, 1991.
- 박영준, 『명령문의 국어사적 연구』, 국학자료원, 1994.
- 박재연, 「이형태의 교체와 관련한 몇 문제」, 『국어학』 58, 2010.
- 서정수, 『현대 국어문법론』, 한양대학교 출판원, 1996.
- 안효경, 『현대국어의 의존명사 연구』, 역락, 2001.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 『연세 한국어사전』,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1998.
- 이금희, 「의존명사의 문법화 정도와 양태적인 의미」, 『어문연구』 40-3, 2012.
- 이선웅, 『한국어 문법론의 개념어 연구』, 월인, 2012.
- 이선웅 · 이은섭, 「이론문법의 관점에서 본 학교문법」, 『국어국문학』 163, 249-277, 2013.
- 이승희, 「형용사 명령문에 대한 고찰」, 『국어학논총(이병근 선생 퇴임 기념)』, 2006.
- 이은섭, 「체언 선행 부사에 대한 관견」, 『국어학』 61, 2011.

- 이익섭, 『한국어 문법』,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 이익섭 · 임흥빈, 『국어 문법론』, 학연사, 1983.
- 이익섭 · 채완, 『국어 문법론 강의』, 학연사, 1999.
- 이정훈, 「한국어 후보층 구문의 구조」, 『어문연구』 37-2, 2009.
- 이혁화, 「교체에 대하여」, 『형태론』 4-1, 2002.
- 이흥식, 「교체의 대상과 조건에 대하여」, 『언어과학연구』 63, 2012.
- 임동훈, 「국어의 형식명사 연구」, 『국어연구』 103, 1991.
- 임흥빈, 「정체 발힘의 형용사 ‘이다’ 문제와 언어」, 『어문학 연구의 넓이와 깊이』, 2006.
- 임흥빈 · 장소원, 『국어문법론 I』,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995.
- 진염평, 「의존명사 ‘것’의 이형태 ‘거/걸’의 정립을 위한 시론」, 『어문연구』 41-4, 2013.
- 홍사만, 「국어 의존명사 {것}의 사적 연구」, 『어문론총』 44, 2006.

❖ ABSTRACT

A Study on Some Forms that Originated from the Dependent
Noun “것” [kət]

Lee, Eun-Sup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some forms, “거” [kə], “게” [kɛ], and “걸” [kəl], which originated from a dependent noun “것” [kət]. Nowadays, some studies have argued that these forms are allomorphs of “것” [kət]. However, they are not allomorphs because they do not show a complementary distribution with “것” [kət]. Moreover, we should not deal with “게” [kɛ] and “걸” [kəl] as at the same level of “것” [kət] and “거” [kə] because they respectively consist of “거” [kə], and the subjective case marker “ㅇ” [ɰ] or the accusative case marker “ㄹ” [ɺ]. In other words, they function as an element of a sentence. Therefore, just the “거” [kə] and “걸” [kəl] remain to be argued about concerning variation among them. Especially, the “거” [kə] is almost freely alternated with “것” [kət], whereas even though “걸” [kəl], which is not part of KP (N + case marker), is very restricted so as to appear to be from “거” [kə]. Of course, the restriction they show cannot be under the condition that corresponds to the conception of the alternation. In conclusion, only the “거” [kə] is just an optional variation morph of “것” [kət], whereas “걸” [kəl] is an optional variation morph of “거” [kə]. There is no allomorph of “것” [kət] in the forms originated from itself.

Key Words

dependent noun, alternation, complementary distribution, allomorph, optional variation morph.

논문접수일: 2015년 11월 03일

심사완료일: 2015년 12월 08일

게재확정일: 2015년 12월 09일